

완주 상운리 고분군, 도 기념물 됐다

전라북도 문화재 심의회서 유적 역사적 가치·의의 인정받아 신규 지정

완주군 상운리 고분군이 전북도의 '도 기념물'로 지정돼 만경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

6일 완주군은 지난 5일 개최된 '전라북도 문화재 심의회'에서 완주 상운리 고분군이 유적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인정받아 '전라북도 기념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완주 상운리 고분군은 만경강 분류와 소양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마한의 분구묘가 군집을 이룬 유적으로, 지난 2000년대 초반 완주 IC 건립에 따른 발굴조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조사 결과 청동기~백제까지 다양한 유구와 유물들이 확인된 가운데 마한의 대표 문화라 할 수 있는 분구묘 다수와 분구묘 내부에서 수 천점에 달하는 토기, 철기, 장신구(옥류)가 출토돼 주목을 받았다.

학계는 오랜 기간 유적을 점유했던 만경강유역 완주인들이 남긴 완주 상운리 고분군에서 체계적인 분구묘의 변화 양상을 확인 가능하며, 토기 등의 유물을 통한 문화적 변이 양상을 가능 확인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땅치와 집계 등 단아구 세트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일유적 내에서 다수 출토된 점, 옥으로 만들어진 장신구가 다량 출토된 점 등을 미루어보아 완주군 용진읍 일원에 마한 54국 중 하나에 해당 할 정도의 큰 정치체력이 유적을 형성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학계에서는 이와 관련, "마한 사람들은 금은보다 옥을 좋아한다"는 문헌기록 상의 마한 문화를 실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등 상운리 고분군이 학술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계된 도로와 불계트 사무실은 위치가 변경됐고, 유적은 문화재청의 원형 보존조치를 받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2015년부터 유적 전수조사와 정밀지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속도로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 이외에도 인접한 일원에 분구묘로 추정되는 고분들이 수십여 기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난 5일 개최된 '전라북도 문화재 심의회'에서 완주 상운리 고분군이 유적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인정받아 '전라북도 기념물'로 신규 지정됐다.

이외에도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소와 협력해 지난 2021년과 올해 발굴조사를 통해 마한 고분을 추가적으로 확인했으며, 완주 상운리 고분군의 국가 사적화를 위한 학술대회를 작년 10월에 공동 개최하기도 했다.

완주군은 특히 지난해에 전라북도 및 마한역사문화권에 해당하는 시군들과 2020년 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마한역사문화권에 전북지역이 제외된 것에 대한 꾸준한 문제 제기와 개정 노력을 통해 작년 12월 마한역사문화권에 전북지역을 포함시키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사업 추진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이번 지정 건은 완주군 차원을 넘어 전라북도 차원에서 향후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마한역사문화권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전북지역 대표유적의 우선 과제의 성격으로 진행됐고, 응관포와 고총고분으로 규정되는 전남 지역 영산강유역 마한문화와 차별된 전북지역 만경강유역 마한문화를 공식화하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 상운리 고분군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마한유적으로서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됨에 따라 그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학계에서는 국가 사적으로 지정될 만 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함목소리를 내는 만큼 이를 위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의 학술조사연구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 사적화를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시켜 최대한 빠른 시기 내에 국가 사적이 될 수 있도록 단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역사문화권 육성과 개발 사업 일환으로 완주 상운리 고분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아우르는 문화향유 공간이자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로 가을 시티투어 떠나요"

군, BTS 화보 주요 촬영지 중심 구성 투어버스 운영

완주군이 가을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시작했다.

6일 완주군은 BTS(방탄소년단) 화보 주요 촬영지 중심으로 구성된 가을철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11월 1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석당일(10일)과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주(10월1일)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마다 총 10회를 운영한다.

'완주로 떠나는 문화산책' 테마로 오전 9시20분에 익산역을 출발해 삼례문화예술촌과 위풍산성, 소양오성한옥마을 등을 둘러보고 오후 6시에 최종 익산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투어 예약시 코레일 열차 이용객은 5~10% 열차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투어 비용은 3000원(성인기준)이다.

전 코스 완주문화관광해설사가 탑재해 해당 코스에 포함된 관광지뿐만 아니라 시티투어버스가 지나가는 곳 구석구석까지 역사·문화 해설도 함께 진행된다.



투어 참가신청은 완주관광마케팅지원센터 홈페이지(www.완주관광.com), 카카오톡 T 서비스에약,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문의는 063-290-3330으로 하면된다.

안소연 문화관광과장은 "완주군은 열차를 이용하면 서울·경기에서 2시간, 광주·전남지역에서는 1시간 이내로 교통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이다"며 "가을철 자연경관이 빼어난 완주여행으로 소중한 추억을 남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무형유산 예능풍류방 기획공연

국립무형유산원, 3개 작품 첫발을 댈다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은 '2022 무형유산 예능풍류방(레지던시)'의 성과를 공연한다고 6일 밝혔다.

'무형유산 예능풍류방(레지던시)'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각자 활동하고 있는 서로 다른 종목의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국립무형유산원에 모여 상호 교류하며 새로운 공연물을 창작하는 '입주 활동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르면 참가자는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하는 '공연 연출 및 실무과정'을 수료한 예능 분야 전승자 중 공모심사를 거쳐 5명을 선정,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간 국립무형유산원 사당에 입주해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에 예능풍류방의 결과물은 '첫발을 댈다'라는 주제로 9월 총 3개의 작품을 전주와 서울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일수마루 소공연장에서 소개되는 공연은 2개 작품으로 7일과 15일 공연한다.

7일 공연은 '김은영(진도씻김굿 이수자)과 김수영(살풀이 이수자)'이 공동 연출한 「업의 경(鏡)」으로,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을 업경대(業鏡臺)를 통해 바라보고 심판함으로써 인류의 평화와 안녕을 씻김과 살풀이춤으로 승화하려고 하는 무용극이다. 두 번째 공연은 15일 '강영미(살풀이춤 이수자)와 신명균(고성농요 이수자)'이 공동 연출하는 「해결사 처용」으로, 한 농부의 인생을 기원, 사랑, 치유, 풍랑, 화합으로 표현하면서 처용이



가진 벽사진경과 국제민간의 의미를 부여한 가무악극이다.

다음으로, 민속극장 풍류(서울)에서는 21일 '강정란(남사당놀이 이수자)'이 연출한 「Hello, 봉구!」를 선보인다. 이는 조선인 친구와 하멜의 우정을 그리면서 난파로 인한 여러 고난을 극복해가는 가무악극이다.

공연에 관련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이나, 전화(063-280-1500, 150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이경운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종후보자 선출

도의회 인사청문 거쳐 10월 중 임명

(재)전북문화관광재단 이사회에서 이경운(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 문화비서관을 대표이사 최종후보자로 선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 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모 지원자 10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2명을 이사회로 추



천, 9월 5일 재단 이사회에서는 이경운 전 대통령 비서실 문화비서관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제4대 대표이사로 선출했다.

이경운 신임 대표이사는 1996년 국회 비서관과 보좌관을 거쳐 문화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문화비서관을 역임해 온 문화·관광분야 전문가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아시아문화개발원 사무국장 겸 아시아문화원 경영혁신본부장 및 민주평화교류센터장을 역임하면서 문화·관광진흥과 재단 경영에 두루 적합하다는 평이다.

한편 이경운 신임 대표이사는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쳐 오는 10월 임명될 예정이다.

대표이사 취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나 정책연구팀(063-230-743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온가족이 함께 하는 즐거운 하모니

제6회

전라북도 아리울 어버이 합창제

보상

2022년 9월 17일(토) 오후 4시~

전주 바울교회 2층 그레이스홀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본 행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